

# 전남 해양쓰레기 공공수거·처리 시스템 시급

**박현식 동부지역본부장 주장**  
**페스티로폼 활용 방안 찾아야**  
**패각 재활용 법령 정비 필요**  
**해양환경미화원제 도입 제안**

전국 수산물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집·운반·처리에 있어서의 공공시스템 적용, 패각 및 페스티로폼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양식어업의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해양쓰레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어촌 자체 정화에만 의존하는 현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박현식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환경산업국장)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개발원에서 작성한 '해양폐기물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6만t(추정)으로, 이 가운데 약 24% 정도인 3만8000여t이 전남 해양에서 발생되고 있다. 전체 해양쓰레기 중 생활폐기물이 60%, 어선과 어업 및 수산양식장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 35%, 중국을 비롯한 해류를 타고 밀려오는 다국적 해양쓰레기 약 6%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외에도 굴과 전복 패각은 골칫거리로 전락해 어촌, 주변 해안가에 버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굴 생산량은 지난 2017년 31만5000t으로, 이 가운데 19.3%인 6080 t이 전남에서, 전복 생산량은 1만6027t으로 완도군에서만 약

72%인 1만1539t이 나오고 있다. 이들 해양쓰레기, 패각 등이 전남 어촌 및 해변의 경관, 자연생태계 파괴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박 본부장의 주장이다. 그는 "해양쓰레기, 패각과 관련해 지자체에 전담 인력이 없고, 수집·운반 및 처리 시스템이 없다"며 "여기에 페스티로폼의 처리 비용이 비싸고, 해양쓰레기를 대부분 저가 발주 방식의 위탁 처리를 하다보니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패각을 재활용하는 노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굴 패각의 경우 비료(생석회)나 오염물질 제거에 이용되는 흡착제, 보조기충제, 비료나 사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전복 패각을 우려낸 물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이 있다는 연구자

료가 있지만, 재활용을 위한 시설이 없고, 법령도 미비한 실정이다. 박 본부장은 개선 방안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해양폐기물 관리를 주도하기 위해 ▲해양환경미화원제도 도입 ▲해양폐기물 예산 배분 방식 개선 ▲지자체 해양폐기물 중간 집하시설 설치 의무화 검토 ▲해양폐기물 처리 계약방법 개선 ▲해양폐기물 저가 발주 금지 등을 제시했다. 또 굴·전복 패각의 자원화를 위해 해양보관 의무화, 재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세척 및 선별 시설을 갖춘 중간집하시설 의무 설치, 재활용 제품 개발 및 사용 권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주관으로 페스티로폼을 현장에서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이동기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지역스타기업 15곳 신규지정 전남도 5년간 14억여원 지원

전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지역스타기업을 신규 지정한다.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중소기업 15곳을 발굴해 최장 5년간 14억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소재한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5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타기업을 신규 선정한다. 이들 기업은 3년 평균 고용증가율 5% 이상,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이상,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 70% 이상, 상시근로자 중 지역청년 인제 30% 이상 등 선택 사항 중 1개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스타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간 비연구개발(R&D) 분야 6500만원, 연구개발 분야 2억원 내외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장평가 40%(기본역량, CEO 역량), 발표평가 60%(성장가능성, 지역사회 공헌 등)로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4일 접수 마감 결과 에너지산업 19곳, 바이오헬스케어 8곳, 첨단운송기기 4곳, 청색청정환경 4곳 등 모두 35개 도내 기업이 신청했으며, 4월 내에 현장 평가 등을 진행해 4월 말 최종 스타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스타기업 16개 기업은 1년간 8억7000만원을 지원받아 매출 증가 69억2000만원, 신규 고용창출 42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스타기업은 전국에 405곳이 지정돼 있으며, 전남도내에는 지난 2018년 15곳, 2019년 16곳 등 31곳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인기몰이

5개 시·군서 3월부터 공급

20% 가격에 12개월 배달

전남도는 지난 3월 공급을 시작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생산 농가와 임산부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국민참여 예산으로 확보돼 전남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시범사업으로 순천시, 나주시, 해남군, 장성군, 신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다.

시범지역 임산부는 총 비용의 20%인 9만6000원을 부담하면, 최대 12개월간 총 48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

원 받을 수 있다.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택배로 직접 제공 받는 임산부와 판로가 확보된 농가 모두 만족하고 있다.

실제로 순천의 임산부 A씨는 "코로나 19로 외출하기도 걱정인데 스마트폰으로 주문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아기와 함께 임산부가 존중받는 기분이 들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울토마토를 납품한 나주의 한 농가 관계자는 "학교급식 납품이 중단돼 걱정이 많았으나 꾸러미용 납품량이 늘어 도움이 되고 있다"며 "어렵게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꾸러미 공급업체인 농협 호남권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의 나승운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

운 시기에 농가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임산부에게 건강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임산부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꾸러미용 농산물을 납품한 100여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수확 전 단계부터 포장까지 안전성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동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친환경 꾸러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내년부터 도내 모든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세월호 아픔 간직한 진도항 개발 본격화

1522억 투입 배후단지 조성

연안여객선 터미널

국민해양안전관 연내 준공

세월호의 아픔을 간직한 진도항이 물류·관광·산업·휴양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미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교육하는 국민해양안전관도 연내 준공될 예정이다.

31일 전남도와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항 일대에 1522억원을 투입해 복합배후단지를 조성, 세월호 재난극복지역인 진도의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진도항 복합배후단지에는 국민해양안전관(사업비 270억원), 복합항만배후단지(443억원), 진도 연안여객선터미널(809억원) 등이 올해 안에 들어선다.

국민해양안전관은 7만8996㎡ 대지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국 초·중·고생과 일반국민대상 교육안전 체험관, 해

안안전정원(추모공원), 유스호텔 등으로 구성된다. 진도항 복합배후단지 조성도 연내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52만1834㎡ 면적의 진도항 복합배후단지가 조성되면 진도는 서남해안의 해양관광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진도군은 내다보고 있다. 여객 및 화물부두 공사, 항로 준설, 진입도로 개설, 휴게공원 조성, 지역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신규 일자리와 소득창출이 가능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 관계자는 "배후지 성토재 사용 문제로 이견과 갈등이 있었고, 공사 중지, 법원 소송 등으로 준공이 지연됐지만 개발 및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돼 완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가 된 석탄재 혼합 성토재의 경우 다른 현장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부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진도=박현석 기자 hypark@

## 순천시·고흥군, '2020 관광두레' 사업 선정

3~5년 국비로 주민사업체 발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공모에 순천시와 고흥군이 선정됐다. 또 순천 정희주 청춘 벚스 투어 대표와 고흥 귀농인 정지영(노티리버섯재배)씨 등이 관광두레 프로듀서(PD)로 지정됐다. 이로써 전남지역에서 활동한 관광두레 PD는 총 6명으로 늘었다. 관광두레사업은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올해 관광두레 PD로 지정된 정희주 대표는 지난 2016년 로컬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T.O.P 순천 아랫장 활성화 프로젝트'로 캡스톤디자인 최우수상을 비롯해 순천 정책 제안 공모전에

서 '드라마세트장 타임워크 여행콘텐츠'로 최우수상, 여수관광항만공사 '광양항 활성화 방안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귀농 6년째를 맞은 정지영씨는 한류상품 개발과 유통을 취급한 일본 회사에서 11년간 종사하다 지난 2015년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후 고흥군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정원센터 조성사업에 뛰어들어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도했으며, 농협중앙회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앞으로 3년에서 최대 5년간 전액 국비로 활동비를 지원받아 해당 지역에서 관광 분야의 다양한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하게 된다. 올해 신규 선정을 포함해 전남도는 지금까지 12개 시군에 16명의 관광두레 PD가 지정돼 45개 주민사업체를 발굴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라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광주전남연구원에 개소

전남도는 30일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광주전남연구원에 개소했다.

'전라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특화 도시재생모델 발굴을 비롯해 정부공모에 선제적 대응,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공동체사업 실행·컨설팅 등의 기본적인 업무추진과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통

합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지역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해 재생의 필요성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규모재생사업과 도시재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